

6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6월부터 독거노인 실태조사 전면 실시

- 실태조사 후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실시, 필요서비스연계 지원-

-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홀로 사망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기존 복지사업과는 달리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각시·군·구 단위로 선발과 교육을 마치고 6월부터 각 사업수행기관에 배치하게 된다.
-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에서 노인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기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 등 213개소를 지난 5월에 지정 완료하였다.
-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자체는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활용하여 우선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전국

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보호관리대상자를 오는 7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 조사내용은 독거노인 88만명의 가족 및 주거상황, 경제·건강상태, 여가·사회참여 활동, 가족 또는 이웃과의 사회관계,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및 보건·복지욕구 등이다.
-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가사·간병도우미, 노-노케어, 자원봉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독거노인 약 15만명을 선정하여 8월부터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실시 및 필요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줌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이다.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기존의 저소득중심 지원에서 『독거』의 생활형태에 대한 지원체계 개발로 독거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노후의 외로움과 박탈감을 해소하여 주는 등 독거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며 나아가 4~50대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 국민건강영양조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 실시
 - 올해부터 연중 실시되는 제4기 조사의 참여율 증가 기대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홍보를 6월부터 8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홍보는 올해부터 연중으로 실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조사 선정자의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 조사체계가 개편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의 홍보를 위해 기존의 라디오 광고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의 역세권에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과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 광고 등을 실시한다.
-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KBS 및 CBS를 통한 라디오 방송 및 전국 역세권에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인 메트로와 데일리 노컷뉴스를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알리게 된다.
- 또한, 수도권지역 지하철인 충무로(4호선)와 고속터미널(3호선)에선 지하철 조명광고로 제작된 국민건강영양조사 포스터 광고를 실시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년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2005

년까지 3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보건통계를 생산하고 국민의 건강수준과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 기존의 국민건강영양조사가 3년 주기로 3개월간의 단기간 조사실시로 지역 단위 통계생산 미흡과 조사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4기 조사부터는 연중으로 실시하게 된다.
- 이번 제4기는 조사표본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200개 지역, 4,600가구를 선정하여 건강 및 영양상태를 설문하고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임상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홍보로 7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조사 참여율이 증가해 양질의 조사 결과를 산출하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 ■ 1인 연금보험료 면제액 최고 1천 4백만원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가입자 혜택 분석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가입자 혜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 1인 연금보험료 면제액이 최고 연 1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해외 단기 파견근로자 및 장기체류자, 이민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것으로, 7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사이 미국내 상사 또는 금융계에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2001년 4월 1일 협정 발효 이후에는 양국의 가입기간이 10년, 만62세 이상이 되면 단기간(주재 당시 2년~6년)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도 월 100~400불 정도의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는 60~70년대 파견 간호사·광부 등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독일연금을 수급할 경우 독일 법에 의해 연금의 70%만 받아오던 것을 2003년 1월 1일 이후 협정 발효로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 2007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상대국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

(2007.3), 프랑스 (2007.6)등으로 전체 협정발효국 13개국중에서 5개국이다.

국회제출 및 공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출범 -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재정추계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를 구성하여 2007년 6월 8일(금) 15:00에 국민연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재정계산은 재정추계 관련 전문가들을 경제학,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등 각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시키고, 재정추계 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재정수지 추계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 또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재정계산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공시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재정수지 계산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 출범한다.
- 현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등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및 논의과제를 제안토록 할 계획이다.
- ※ 공적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안) (김춘진의원발의, '07.4.19)
- 앞으로의 재정계산 추진일정은 먼저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금년 6월부터 법정 시한인 내년('08년) 3월까지 실시한다.
- 국민연금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7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8월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9월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10월에는

200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발간

- 2006년도 활동자원봉사자 지난해보다 약1.5배이상 증가
- 보건복지부와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김득린)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2006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를 발간함. 이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자원봉사자는 총 519,080명으로 2005년 345,064명보다 약1.5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현황
 - 등록자원봉사자: 총 1,287,235명(누적)
 - 활동자원봉사자: 519,080명(2006년 1회 이상 봉사자 기준)
 - 남자 191,781명(36.9%), 여자 327,299명(63.1%)
 - 10대이하 36.6%, 20대 21.1%, 30대 11.1%, 40대 16.1%, 50대 9.8%, 60대이상 5.4% 학생 46.8%, 주부 18.0%, 기타 35.2%
 - 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평균봉사시간 및 횟수 : 20.83시간, 5.9회
 - 평균 두 달에 한번 3.5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 성별·연령별 현황
 - 자원봉사자를 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여자가 전체의 63%로서 남자보다 많았으며,
 - 연령대별로는 10대 및 20대가 58%에 달하여 중·고등학생과 젊은층이, 직업별로는 학생과 주부들이 65%로서 우리나라 봉사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가족관계내 갈등이 노인학대로 이어져
 - 2006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발간 -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06년 한해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05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고,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총 19,092건이 제공되었다.
-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언어·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높고,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1,540명으로 전체 피해노인의 2/3 (67.7%)를 차지하였다.
 -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60%인 점과 비교할 때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가 다소 많았다.
- 전체 피해노인 2,274명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는 359명으로 17.8%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7%인 점과 비교하면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초고령 피해노인의 52%(187건)이 고령의 성인자녀(70세내외)에 의한 방임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대행위자는 친족이 대부분
 -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7.3%)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아들·며느리에 의한 학대비율이 67.3%이며,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 65세 이상 동거노인인구 중 주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경우는 78.6% (2000년 기준)이다.
- 학대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요인, 그 중 가족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포함한 가족갈등이 49.4%로 분석되었다.
- 노인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08년도에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보호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이 가족 간 갈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학대유발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왜 노인을 학대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6월 14일(목) 대우컨벤션홀(2층)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 확대,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용전화 (1577-1389)홍보 강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향후 실시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은 지역사회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부담을 줄여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봄미바우처제도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과 초고령노인과 사회적 안전망을 연결함으로써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화이자와 R&D 양해각서 체결
 - 2012까지 총 3억 달러 규모의 신약개발 및 보건의료 연구투자 지원 계획 협력 -

-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과 제프 킨들러(Jeff Kindler) 화이자 본사 회장은 6월 13일(수) 오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화이자는 2012년까지 한국에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신약개발 및 보건의료 기반기술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것은 최근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 R&D 투자중에 단일규모로는 최대로서 최고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이번에 발표한 협력 운영은 “바이오 코리아 2006” 방문 등 화이자 본사 R&D 분야의 전문가와 최고 경영진이 최근 몇 년 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다각적 검토 끝에 이뤄진 것으로, 화이자는 한국 의료진의 우수한 연구능력과 뛰어난 임상연구시설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 보건복지부와 화이자가 협력할 주요내용을 보면,
 - 질병기전연구는 물론, 신물질 후보군 발견부터 전임상 및 초기임상연구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3상 등의 후기 임상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 걸친 협력 관계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화이자 본사 R&D 센터에 펠로우십 프로그램 및 국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또한 한국의 주요대학 및 연구그룹과 약동학/약력학 (Pharmacokinetics/ Pharmacodynamics, PK/P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중개연구, 진단학 등 의약품 개발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신약개발 기초연구에 대해 산-학-연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한국사무소(Office for Strategic Alliance)를 설립하여 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화이자의 이번 투자 계획은 혁신적 의약품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유를 가능케 하고, 한국이 바이오 및 제약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R&D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R&D 분야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해외 제약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하여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프 킨들러 화이자 회장은 “한국정부와 화이자의 연구개발 협력이 전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바라며, 연구개발 결과로 인해 한국과 전세계 환자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외래 과다 이용자 수진자 조회 결과, 655개 기관에서 부당혐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웅)은 '06.3/4분기 중 요양기관 내원횟수 18회 이상 외래 과다 이용자 170만명과 동일세대원 102만명을 대상으로 진료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실시 대상자 272만 명은 같은 기간중 병(의)원 외래 및 약국 이용자 3,067 만명중 8.87%에 해당된다.
- 총 통보건수 34,407천건 중,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된 건은 서면 103,298건, 전화 167,746건, 인터넷 2,275건이 접수되어 총 273,319건(통보건 대비 0.8%)을 대상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실시결과
 - 전체 64,025개 통보 요양기관중 612개 기관에서 40,323건, 256,293천원이 부당 확인되어 환

수 결정하였다. 부당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 자체환수 결정한 612개 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0개(통보기관 285개 중 10%), 병원 31개(통보기관 988개중 3%), 의원 209개(통보기관 19,841개중 1%), 치과 102개(통보기관 11,358개중 0.9%), 한의원 99개(통보기관 9,229개중 1%), 약국 134개(통보기관 19,008개중 0.7%), 보건기관 7개(통보기관 3,319개중 0.2%)로 나타났다.
- 한편,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개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종사자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무료진료후 보험청구, 진료내역 조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금번조사에서 증도용·대여로 추정된 59명중 증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8,826천원을 부당 이득고지 하였고, 44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다.
- 향후계획
 -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각 부당사례별 case study를 통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 이상청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형화, 고도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 정례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대여·도용 진료건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이용 접근 더 쉬워져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헬프라인의 접속 편의를 위하여 한글 도메인 2개를 추가 하였다.
- 기존 도메인(<http://helpline.cdc.go.kr>) 외에 인터넷 주소창에 ‘www.헬프라인.kr’ 또는 ‘www.희

귀난치.kr'를 입력해도 헬프라인 홈페이지 연결이 가능하다.

- 또한 헬프라인에서는 최신의 희귀질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203개의 질환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전문병원에 대한 정보도 보강하였다.

■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공표

-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전국 151개 표본구에서 약 1만6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2006년 전국에서 실시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구강건강상태가 2003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지표인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충치)경험치아수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하지만, 2003년 3.3개에서 2.2개로 감소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의 구강건강추세를 전환하는 놀라운 수치이다.
 - ※ 12세 우식경험영구치수: 한국('72년 0.6개 → '03년 3.3개), OECD(1.6개)

기준(12세)	2003	2006	HP 2010
치아우식경험율	75.9%	61.0%	62.0%
치아우식유병율	49.8%	23.5%	34.0%
우식경험영구치수	3.3개	2.2개	2.6개

- 청소년 및 성인의 치주질환도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주질환유병율)	2003	2006	HP 2010
청소년(15-19)	38.2%	27.7%	33.0%
성인(35-44)	72.4%	56.8%	70.0%

- 그러나, 장년층 이상의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인식이나 염려수준은 2003년에 비해 악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노인의 자연치아수는 증가했음에도 저작불편감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등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였다.

- ※ 노인(65~74) 자연치아수 : 12.1→17.2개, 의치필요자율 42.5→35.3%, 저작불편호소율 : 53%
장년(45-54)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 44.1→55.0%
항상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비율 22.5→39.3%

- 조사결과 잇솔질, 치과병의원에서의 정기검진 등 구강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 ※ 아동 점심직후 잇솔질 실천율(8세) 27%
치과병의원 이용 정기구강검진 수진율(35-44세) 6%
- 실태조사 분석 결과,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불소양치사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보건실 확충 등으로 구강건강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꾸준한 건강투자 정책과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구강검진·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과 조기 치료 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구강질환으로 인한 손실
'05년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4.1%(1조 275억원)이나 비보험 포함 3-4조 추정
근로손실일 889만일, 경제손실비용 약 5조원

■ 국내 우수한약제품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 - 「2007 상해의약품박람회」에 국내 우수한약제품 홍보관 설치 -

- 보건복지부는 국내 우수한약제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을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올 사업목표는 상해의약품박람회(6월)와 홍콩의약품&건강식품박람회(8월)에 참가하여 우 리한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한약 등 한방제품 생산업체 6개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21

일까지 개최되는 『2007 상해의약품박람회』에 우선 참가한다.

- 참가업체는 우수한약재제품(GAP품목) “(주) 동우당제약, (주)휴먼허브”, 한방건강식품 “(주) 약령시사람들”, 한방화장품 “(주)자미, 소리소, 하늘호수” 등 6개 업체이며,
 -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부스, 브러쉬어, 상담 및 통역도우미 등을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해 국고로 지원한다.
 - 이는 최근 FTA 체결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우수한약제품 생산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아울러,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07 홍콩의약품 및 식품박람회(ICMCM 2007)』에 2차로 참가할 계획이며,
- 동 박람회 참가희망 업체는 7월 18일까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www.dgom.re.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 ■ 저소득층 기초보장지원 큰 흐름 바뀐다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착수를 위한 기획단 발족 -

-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 복지부(장관 : 변재진)는 오늘(6.20) 낮 11시 팔레스호텔에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 등 기획단은,
 - 기초보장체계의 개편을 통해 FTA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여 빈곤층에 대한 보다 융통성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설치되는 것이다.
- 특히, 소득·주거·교육·의료 등 육구별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급여체계 개편작업의 핵심이다.

-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문을 열었다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보장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학계·연구기관과의 활발한 논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 향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 기초보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 이르면 내년 초에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 건강검진 비용 청구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 요양기관 행정비용 대폭 절감 기대 -

- 건강검진비용 청구 방식이 앞으로는 인터넷 청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청구 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하여 월별로 청구 하여오던 것을 6월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을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 이렇게 되면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오던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부담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강검사를 하는 치과를 포함하여 건강검진, 생애주기 검진, 특정 암검진 등 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검진기관 수는 16,000여개에 이르고,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천 3백만 건의 검진비를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즉시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속하여 검진비 청구는 물론 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 비용청구 방식에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이 있으나 진료비 청구시 이용하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떨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 ■ 파킨슨병 등 퇴행성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실태조사 시행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지원으로 『파킨슨병 등 퇴행성질환의 지역사회 조사사업』이 '07.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파킨슨병 등 퇴행성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실태조사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 중 신장질환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의료비 수요가 많은 파킨슨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사업이 기획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책임연구자 정해관 교수) 주관으로 강릉시보건소,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및 강릉시아산병원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 강원도 강릉시 노인을 대상으로 파킨슨병 및 노인성 뇌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07.6월에 시행할 1차 조사는 설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전문의 진찰, 정밀 검사 등의 2, 3차 조사('07.8월까지)가 시행된다.
 - 본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파킨슨병 등 노인성 뇌질환자의 유병률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의 현황 및 의료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